

아빠의 고향 올갱이마을

아빠의 고향은 괴산이다.

“오늘 기분 최고!!”

드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 괴산 대학찰옥수수를 수확할 때가 되었다.

“우리 가족 모두 집합!!!”

옥수숫대가 어느새 내 키보다 더 커져 있었다. 나와 사촌들도 어른들처럼 옥수수를 따고 싶었다.

“너희는 옥수숫대에 있는 잔털이 따가워서 힘들 거야. 할머니가 이따가 찌줄 테니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렴.”

할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할머니네 집 마당에서 비석치기나 땅따먹기 등의 놀이를 하였다. 하지만 금방 심심해졌다. 그때 어른들께서 일을 다 마치고 들어오셔서 올갱이를 잡으러 가자고 하셨다.

“야호!!!”

우리는 쏘살같이 준비를 마치고 따라나섰다.

‘오늘은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괴산에는 둔울올갱이마을이 있다. 여름에는 여기서 올갱이축제도 매년 열린다. 자연 환경이 깨끗한 곳에만 산다는 반딧불이와 올갱이가 있는 바로 그곳, 달천강 근처가 바로 할머니댁 근처이다. 달천강 다리 밑으로 갔다. 근데 예전만큼 잘 잡히지 않았다.

‘왜일까?’

‘그새 물이 오염된 걸까?’

‘그래서 반딧불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까?’

내가 한참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빠께서 말씀하셨다.

“올갱이는 어두워지기 시작해야 잘 잡히는데 우리가 너무 일찍 나왔구나.”

그리고 보니 전에는 저녁을 먹고 나왔던 것 같다.

‘휴, 다행이야. 이곳이 오염되어서가 아니라서…….’

올갱이는 야행성이라 저녁에 강가의 돌 위로 많이 올라온다고 아빠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기억이 났다. 어쩔 수 없이 올갱이는 저녁에 다시 나와서 잡기로 하고 대신 물놀이 좀 하다가 집으로 왔다.

저녁을 먹고 해가 저물어 갈 때 다시 온 식구가 달천강 다리 밑으로 갔다.

‘이야, 신기하다! 아까랑 같은 곳인데 그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올갱이들이 물속의 돌에 붙어 있거나, 아예 물 위에 드러난 돌 위에도 붙어 있네!’

돌을 들추거나 하면 그 돌 밑에 붙어 있기도 했다. 꼭 보물찾기하는 기분이 들었다.

“와, 잡았다!”

“나도 잡았다!”

“내 것이 가장 클 걸?”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언니와 오빠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한창 즐겁게 올갱이를 찾아 그릇에 담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부르셨다. 고개를 들어 보니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보물찾기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가는 것도 몰랐네!”

우리가 잡은 올갱이가 가져온 양동이에 반이나 넘게 찼다.

“저기 반짝거리는 것이 움직여.”

“이야, 반딧불이다. 여러 마리가 춤을 추고 있네!”

“저쪽에서도 한 무리가 하하호호 파티를 하고 있어!”

마치 우리 가족들만 반딧불이들의 무도회장에 초대 받은 기분이었다. 이 멋진 무도회장 안에서 우리 가족도 흥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몸도 들썩였다. 무도회를 즐기다보니 어느새 할머니네 집 앞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씻는 동안 할머니께서 올갱이를 삶아주셨다. 그 속에서 올갱이 살을 빼야 아침에 올갱이국을 끓일 수 있다고 하셨다. 올갱이 살 빼는 것은 처음에는 자꾸 끊어져서 화가 났는데 참고 자꾸 해보니 나중에는 괜찮아졌다.

“안 끊어지게 살살 돌려야지, 히히.”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서 집 뒤 텃밭에서 뜯어오신 아욱을 넣고 올갱이된장국을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고 가족들이 헤어져 우리도 돌아왔다.

아빠의 고향 괴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할머니네 마을 입구에 있는 달천강 위의 다리를 건널 때면 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친구들이 제주도나 해외로 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탔다거나 여행가서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부럽지 않다. 매년 새로운 모습을 하고 나를 초대해주는 나만의 멋진 여행지가 있으니까 말이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될까?”

벌써 설레고 기대가 된다.

김유진

청주 운천초등학교 2학년